2026. 경남교육 사서가 권하는

11월의 책

교육리더



사고외주

홍진기 지음

고등



너무 늦은 안녕은 없다

김하연 지음

중등



신들은 생각하라고 말한다

키아라 파스토리니 글,
앙쥐나 부탕 그림

초등고



붉나무랑 마을 풀꽃 놀이

붉나무 글·그림

초등저



나의 첫 번째 미역국

염혜원 글·그림

이 추천도서 요약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사서들로 구성된
〈경남교육 사서가 권하는 이달의 책〉 TF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사고외주

홍진기 지음
어크로스 / 2026 / 152쪽

기술이 배경이 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어떤 계산식으로도 풀리지 않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당신만의 '주관'입니다.

책 속 구절, 148쪽

과정 없이 결론만 얻는 시대, 우리는 무엇을 잃어가고 있나?

"교수님, 이렇게 답이 빨리 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왜 굳이 힘들게 생각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으로 책은 시작한다. 일상으로 스며든 AI와 더불어 학교와 회사에는 '똑똑한 무능함'이 자리를 잡았다. 예전에 비하면 놀랄 만큼 빠르게 그럴듯한 결과물을 내놓지만,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말이다. 정답을 찾아 고민한 흔적 없이 생각을 시작하기도 전에 AI로부터 받은 결론에 안주하는 '사고외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간은 생각하지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존재다.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전통, 규범, 제도 같은 것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 AI는 이를 가장 정교하게 수행하는 도구다. 감정을 드러내지도, 비난하지도 않고 합리적 언어로 최적의 선택을 제시한다. 덕분에 결정은 빨라지고 불편을 견디는 힘은 사라진 듯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고를 외주할수록 주관을 가지고 결정해 본 경험이 줄어들고,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는 언어가 사라진다. 따라서 자신의 판단을 책임지는 감각도 약해지고 만다. AI 앞에서 생각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은지, 중요한지, 무엇을 끝까지 책임질지를 결정하는 능력인 '판단의 장치'를 만들고 단련해 나가야만 한다. 판단 구조를 만드는 논리 역시 필수적 생존 기술이다.

도구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이다. AI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할 때 잠시 멈출 수 있어야만 한다. AI 개발에 중대한 역할을 한 이들이 경고하는 위험에 주목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더불어 오늘 내가 만든 하나의 문장, 선택에 나의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 들여다볼 일이다.

2026년 11월

고등



너무 늦은 안녕은 없다

김하연 지음
위즈덤하우스 / 2026 / 305쪽

동찬은 환하게 웃었다.
윤아가 가져갈 마지막 기억이
눈물이 아닌 미소가 되도록.

책 속 구절, 188쪽

우리가 헤어질 때, 너무 늦은 안녕은 없다

영심탐정사무소의 소장 최영심과 조수 박상구는 미영 프라자에 나타나는 귀신을 쫓아달라는 황당한 의뢰를 받는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두 사람은 사고로 목숨을 잃고, 유령이 된 그들에게 '영혼 구제 임무 계약'이라는 또 다른 사건이 펼쳐진다. 이승에 남은 영혼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그들이 승천하게 되고, 그 대가로 천국행 프리패스 티켓을 얻을 수 있다!

성사가 어려워 보이던 일은 동찬을 만나며 해결의 물꼬가 트인다. 고등학생인 동찬은 어릴 때부터 귀신을 보고 대화할 수 있었지만 능력을 숨긴 채 조용히 살아왔다. 수고비를 넉넉히 주겠다는 말에 딱 일주일만, 영심과 상구의 일을 돕기로 한다. 목표는 미영 프라자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 귀신, 계상여고 강진원을 구제하는 것이다.

동찬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진원의 주변 인물을 수소문하며 그녀가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 진원이 왜 미영 프라자에서 홀로 죽음을 맞게 되었는지 사고의 전말을 알게 된다. 운명의 장난처럼 그 이야기의 끝에는 동찬이 가장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닿아있는데…. 이별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순간 동찬은 승천을 앞둔 영혼들을 위해 결심하고, 슬프고도 다정한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우리는 모두 이별의 아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죽은 사람을 볼 수 있지만 정작 누군가와 헤어지는 법은 배우지 못한 소년 동찬. 그가 소중한 이를 떠나보내는 모습은 이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따뜻한 작별을 고하고, 유한한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 살아남은 사람의 몫은 아닐까?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사랑했던 이에게 건네는 안녕에는 너무 늦은 때란 없는지도 모른다.

2026년 11월

중등



신들은 생각하라고 말한다

키아라 파스토리니 글, 앙쥐나 부탕 그림
탐 / 2026 / 168쪽

신화는 계속 재해석되고 각색되었어요.
그래서 신화는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있는 거예요.

책 속 구절, 7쪽

신화의 렌즈로 들여다본 인간 세상

고대 그리스인이 남긴 문화유산은 시대를 초월한다. 문학, 철학, 정치부터 예술, 스포츠까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 신화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면서 수많은 이야기와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이 세상 모든 이야기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고대인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리스 신화 열두 편을 통해 인간 세상에 숨겨진 의미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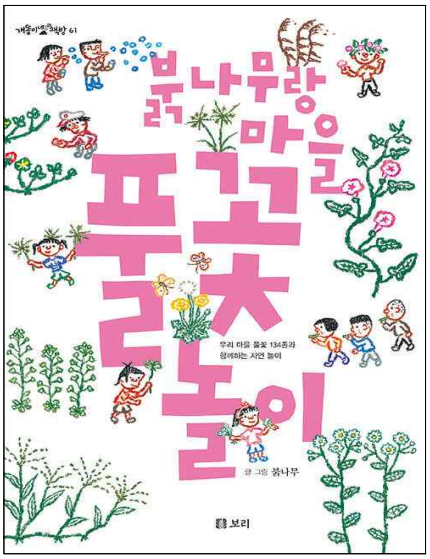
첫 번째 이야기 「카오스, 천지창조와 신들의 탄생」에서는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의 신들이 티탄 신족을 이긴 것을 카오스(혼돈)와의 전쟁에서 코스모스(질서)가 승리한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헤라클레스가 괴물이나 악당을 무찌르는 과업 역시 신의 뜻에 따라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행동으로 바라본다. 이처럼 다양한 신과 영웅들의 선택을 따라가며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욕망과 사회의 모습을 차근차근 들여다본다.

더 나아가 이 책은 수천 년 전 고대의 이야기라고 해서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현대에 닿아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전해 제우스가 만든 세상의 질서를 깨뜨려 벌을 받는다.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파괴로 코스모스를 무너뜨리고 있는 인간 역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각 장의 끝에는 플라톤, 세네카 등 고대의 위대한 시인과 철학자가 선생님으로 등장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신화를 통해 무엇을 생각해 볼 것인지 짚어준다. 여기에 그래픽 노블 형식의 그림을 더해 자칫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철학적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신화를 옛이야기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속에 숨겨진 심오한 의미를 읽어내 보자. 현재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11월

초등고



붉나무랑 마을 풀꽃 놀이

붉나무 글·그림
보리 / 2026 / 216쪽

풀꽃과 놀다 보면 하루가 다 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 신나게 놀아.

책 속 구절, 5쪽

얘들아, 마을 풀꽃 놀이 가자

우리가 늘 오가는 길가, 담장 밑, 아주 작은 틈새에서도 스스로 피고 지는 수많은 풀꽃이 있다. 한 시인의 말처럼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것들이 없다. 제비꽃, 뽀리뱅이, 쑥부쟁이 등 이름도 귀엽고 정겨운 풀꽃 하나하나에 흥미로운 놀이가 펼쳐진다.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즐거움을, 어른들에게는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 추억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코스모스, 봉숭아꽃, 깨꽃, 분꽃이 피는 가을 꽃밭에는 놀거리가 많다. 봉숭아잎과 꽃잎에 소금과 백반을 넣고 곱게 찧어 손톱 물들이기, 코스모스 꽃잎 떼기, 깨꽃 꿀 먹기, 분꽃 낙하산 놀이도 소소하지만 재밌다. 겨울에는 은빛 물결 일렁이는 억새밭에서 놀아볼까? 억새로 붓이나 솟대, 부엉이 만들기는 특별한 손재주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봄에는 마을 구석구석을 밝히는 노란 꽃이 있다. 민들레다. 민들레씨 불기는 기본! 꽃자루는 속이 비어서 바로 피리를 불 수 있다. 예쁜 꽃시계, 꽃반지, 꽃귀걸이도 만들 수 있다. 여름이면 살랑살랑 꼬리 치듯 바람에 흔들리는 강아지풀과 놀아보자. 줄기를 길게 끊어 간질간질 간지럼 태우기, 강아지풀 총 쏘기, 토끼 반지 놀이 등 해볼 거리도 다양하다.

풀꽃을 활용한 여러 놀이로 빼곡하지만 재미난 글과 익살스러운 그림체로 전혀 지루하지 않다. 식물마다 나고 자라는 특징이며 생김새 묘사에도 소홀함이 없다. 책이랑 함께 주변의 보물 같은 풀꽃들을 만나러 가는 건 어떨까? 134종의 풀꽃과 일 년 내내 함께 해보자. 자연은 놀이터가 되고, 풀꽃은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동무가 될 테다.

2026년 11월 초등저



나의 첫 번째 미역국

염혜원 글·그림
웅진주니어 / 2026 / 40쪽

우리가 미역국을 먹는 건 어머니들을 기억하고,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란다.

책 속 구절, 29쪽

사랑이 담긴 깊은 바다 한 숟가락

미역국은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이다. 뽀얀 국물에 갓 지은 쌀밥 한 덩이 푹 말아 호호 불어 입에 넣으면, 속까지 든든해지는 그 맛을 어찌 모를까. 특히 생일날 아침, 정성껏 끓여주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마주하면 나를 향한 애정과 축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그런데 생일을 맞은 '나'는 식탁에 올라온 미역국이 썩 달갑지 않다. 맛있는 음식도 많은데 말이다. 미끌미끌하고 바다 냄새가 나는 국을 휘휘 저으며 시큰둥한 나에게 엄마는 그 음식에 얽힌 옛이야기를 들려준다. 과연 이 미역국을 누가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고, 왜 태어난 날에 먹게 되었을까?

아주 오랜 옛날, 제주의 깊고 푸른 바닷속. 한 해녀는 엄마 고래가 새끼를 낳고 미역을 먹는 모습을 우연히 마주한다. 신기한 마음에 아기를 낳은 뒤 미역으로 국을 끓여 먹어보았고,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낀다. 그 후 해녀들은 딸이 아이를 낳으면 건강을 바라며 미역국을 끓여 주었다. 그렇게 엄마에서 딸로, 딸에서 또 그 딸에게로 이어진 마음은 어느새 생일날이면 빠지지 않고 오르는 국에 담기게 되었다.

소박한 음식에 얽힌 이야기가 따스하면서도 흥미롭다. 책 전체에 흐르는 부드러운 푸른빛과 정겨운 그림이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추억을 꺼내 보는 듯 아련한 여운을 남긴다. 책을 덮고 미역국을 한 숟갈 뜨다 보면, 깊은 바다 내음과 함께 그 안에 깃든 사랑에 코끝이 찡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라. 다가오는 생일에는 나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 주신 분께 고마운 마음을 건네 보자.